

맞춤형 보육제도시행 개선 건의안

(이북회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249 |
|----------|------|

2016년 6월 일

발의연월일 : 이북회 의원(김영길 강혜순

발의자 : 권태호, 김순점, 이효상, 신성봉,
서경환, 천병태, 김경환, 하경숙)

1. 제안이유

- 올해 7월1일부터 실시되는 보건복지부의 비현실적인 맞춤형 보육정책 시행으로 보육대란이 우려됨.
-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의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장의 목소리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 보완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 제도를 강행하려 하고 있음.
- 맞춤형보육 제도는 어린이집의 경영난을 악화시켜 영세 어린이집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보육의 질 저하를 동반하여 학부모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어려움과 육아부담을 가중시킴.
-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맞춤형 보육정책 시행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사업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건의함.

2. 주 문

첫째,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운영시간 개선해야!

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종일형 보육시간인 12시간은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아동학대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보육운영시간을 8시간으로 개선부터 해야 될 것이다.

둘째, 비현실적인 맞춤형보육료의 현실화 시급!

현재의 보육료 기준이 비현실적이다. 맞춤형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면과 내용적인 측면에도 종일형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있어, 보육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맞춤형 보육료를 20% 감액함은 부당하고 보육의 질을 저하 시킬 수밖에 없다.

셋째, 전업맘과 워킹맘, 영아반 부모와 유아반 부모와의 차별을 철폐하라! 전업맘 유아의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 할 수 있다. 하지만 맞춤형 보육제도의 경우에는 전업맘 영아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6~7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영유아 보육법상 보육이념에도 반하는 사항이 될 것이다.

넷째, 감액 없는 지속적인 기본보육료 지원하라!

일부 이용시간의 변화가 있다고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 어린이집 회계상 고정 비용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어린이집 보호 명목으로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지원은 현행수준을 유지해 지원해줘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할 수 있다. 기본보육료의 감액 시 그동안 정부보육정책에 앞장서온 어린이집들이 저 출산으로 인한 원아감소 등으로 운영의 어려움과 보육의 질 저하를 동반 할 것이다.

다섯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지원책을 마련하라!

맞춤형보육료를 현행대비 20%을 감액하는 것은 어린이집 재정여건을 가중시키고 교사의 근무환경을 후퇴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종일형 보육교사의 경우 행정업무의 증가 등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긴급 바우처 사용 영아가 추가되는 경우 보육부담이 늘어나므로 구체적인 교사처우개선 마련도 필요하다.

위와 같이 산적한 문제점을 방치한 채 정부의 의지만을 앞세워 강행 하려는 맞춤형보육정책 사업은 누리과정에 이어 다시 보육대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는 저출산 시대 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맞춤형보육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맞춤형 보육제도시행 개선’ 건의문

올해 7월1일부터 실시되는 보건복지부의 비현실적인 맞춤형 보육정책 시행으로 어린이집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또 다른 보육대란이 우려 되고 있어 맞춤형 보육사업의 개선을 촉구한다.

맞춤형보육은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장의 목소리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어린이집의 경영난을 악화시켜 질 높은 보육을 더욱 기대하기 어렵게 할 것이며 점차 폐원에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특히 이는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게 돼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어려움과 육아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 어린이집 교직원들의 경영난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게 맞춤형 보육정책 시행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사업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건의한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운영시간 개선해야!

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종일형 보육시간인 12시간은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아동학대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보육운영시간을 8시간으로 개선부터 해야 할 것이다.

비현실적인 맞춤형보육료의 현실화 시급!

현재의 보육료 기준이 비현실적이다. 맞춤형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면과 내용적인 측면에도 종일형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있어, 보육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맞춤형 보육료를 20% 감액함은 부당하고 보육의 질을 저하 시킬 수밖에 없다.

전업맘과 워킹맘, 영아반 부모와 유아반 부모와의 차별을 철폐하라!

전업맘 유아의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 할 수 있다. 하지만 맞춤형 보육제도의 경우에는 전업맘 영아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6~7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영유아 보육법상 보육이념에도 반하는 사항이 된다.

감액 없는 지속적인 기본보육료 지원하라!

일부 이용시간의 변화가 있다고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 어린이집 회계상 고정 비용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어린이집 보호 명목으로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지원은 현행수준을 유지해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이 크다 할 수 있다. 기본보육료의 감액 시 그동안 정부보육정책에 앞장서온 어린이집들이 저 출산으로 인한 원아감소 등으로 운영의 어려움과 보육의 질 저하를 동반 할 것이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지원책을 마련하라!

맞춤형보육료를 현행대비 20%를 감액하는 것은 어린이집 재정여건을 가중시키고 교사의 근무환경을 후퇴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종일형 보육교사의 경우 행정업무의 증가 등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긴급 바우처 사용 영아가 추가되는 경우 보육부담이 늘어나므로 구체적인 교사처우개선 마련도 필요하다.

위와 같이 산적한 문제점을 방치한 채 정부의 의지만을 앞세워 강행하려는 맞춤형보육정책 사업은 누리과정에 이어 다시 보육대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는 저출산 시대 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맞춤형보육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2016. 6. 2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